

##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부모됨의 동기에 관한 연구

마지순<sup>1</sup>, 박정환<sup>2\*</sup>, 강영식<sup>3</sup>

<sup>1</sup>거제대학 유아교육과, <sup>2</sup>제주대학교 교육학과, <sup>3</sup>명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ttachment and parent motivation of university student

Ji-Sun Ma<sup>1</sup>, Jung-Hwan Park<sup>2\*</sup> and Young-Sik Kang<sup>3</sup>

<sup>1</sup>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Je College

<sup>2</sup>Dep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3</sup>Dept of Social Welfare, Myung Sh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인식한 어머니 및 아버지 애착과 부모됨의 동기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W 대학교의 부모-자녀관계론을 수강하는 대학생 223명이다. 연구도구는 부모애착(IPPA)과 부모됨의 동기에 관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대학생들은 아버지에 대한 애착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들의 부모됨의 동기는 전체적으로 평균보다 높았지만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대학생들의 어머니와 아버지 애착은 부모됨의 동기와 정적상관이 있었다.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애착 중 의사소통과 신뢰감 애착이 높을수록 부모됨의 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로 볼 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 부모교육은 대학생들의 부모됨의 동기를 높이기 위해 부모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래의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와 애착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d correlation between the mother and father's attachment and the parent motivation. The subjects were W university student 223 of Jeon-buk province. They took the parent-child relation courses. The questionnaire were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and Parent Motivation Scale.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Pearson correlation using the SPSS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university students who perceived the mother's attachment higher than the father's. Second, Parent motivation of the university students who perceived higher medium and the sex difference were no significance. Third, parent attachment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parent motivation. The finding from above results were that pre-parent education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considered with the content that promotion to the parent attachment.

**Key Words** : Parent attachment, Parent motivation

### 1. 서론

애착은 부모-자녀 관계를 전 생애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써 초기양육자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건강한 성격으로 발달할 수 있으며[14] 개인의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생애 초기에 형성된 애착은 아동의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 양육

자와의 사이에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과 수정 및 적응의 과정을 거쳐 내적표상을 형성하며 자녀들은 부모와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내적실행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갖게 된다[27].

내적실행모델이란 각 개인이 자기와 타인 그리고 주변 세계에 대하여 가지는 내적인 표상으로 생후 1년 동안 양육자와의 경험을 통해서 그 기초가 형성되는 것으로서

\*교신저자: 박정환(edu114@jejunu.ac.kr)

접수일 10년 09월 16일

수정일 10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 11년 01월 13일

애착모델이 정서적이고 탐색적 활동을 지지해주는 맥락 일 때 가치 있고 유능한 자기의 실행모델이 형성된다[30]. 애착의 내적실행모델은 개인이 정서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성화되며 개인 자신에 대한 지각과 외부 세계에 대한 반응 유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28]. 그러므로 애착의 내적실행모델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청사진으로 이용된다. 그러한 예로 부모와의 관계가 좋았다고 회상한 사람들은 자신의 결혼생활도 만족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30].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유아의 애착은 인간의 발달과 맞물려 계속 성장하고 변화된다. 영유아기의 애착이 정서적으로 안정 기저를 제공받는 것이라고 볼 때 이는 자신들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반면 청소년기의 애착은 부모로부터 독립적으로 사는 것을 배우면서 생겨나는 강력한 정서 상태를 탐색하기 위하여 형성된다. 그러므로 애착의 형성은 인생초기에 어머니에 의해 먼저 형성되고, 아버지, 조부모, 그리고 다른 친인척으로 확장되어 간다. 이렇게 형성된 애착은 다시 또래 및 배우자로 확장되며 더 이후에는 자녀와 동료 혹은 손자녀까지 확대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인간발달에 따라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구성원들도 시간의 경과와 함께 변화되는 것이다[18]. 그리하여 애착은 구성원의 확대와 더불어 세대 간의 전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31].

세대 간의 전이에 대한 연구[4,5]를 보면 대학생들이 자신을 양육해 준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서로 정적인 상관관이 있었다. 즉 대학생들은 자신을 양육해준 부모들을 통하여 부모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해 가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결과로서 부모들과 어떠한 애착 관계가 형성되었는가는 부모됨의 동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부모됨은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등의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것[10]으로 실제 부모가 되기 이전의 심리적인 동기로서 획득되고 선택되는 것이며 각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부모됨의 동기를 형성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태도를 결정하는 일이며 이는 개인의 생애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을 형성하여 새로운 삶을 영위하여야 하는 가족구성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부모됨에 대한 준비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5,19,22].

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에 관한 Morahan-Martin[29]의 연구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연속성, 전통, 안정, 부모기의 역할, 자녀를 가짐으로서 얻는 목표 및 인센티브, 부모됨을 통한 사회적 지위 획득 등과 관련된 동기가 더 높게 나타남으로서 더 보수적인 경향을 나타냈

다. 이와 유사하게 박화윤 등[5]의 연구에서도 부모됨의 동기에 대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아버지의 역할인 도구적 동기가 가장 높음을 발견했다. 반면에 부모됨은 자식을 기르려는 이타적인 동기, 정서적 동기로서 인식한 연구결과도 있었으며 부모됨의 동기를 보상의 측면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9].

이렇듯 부모됨의 동기는 부모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탁월하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의 시작과 그 이전부터 그 기원을 두고 있다[32]. 특히 부모와의 애착이 세대 간에 전이되며, 부모됨의 동기 중 부모와 자신의 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정은순[20]의 연구들에 기초해 볼 때 부모애착과 부모됨의 동기는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반면 부모애착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모됨의 동기와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대학생들의 부모애착에 대한 연구들은 부모애착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래 애착과의 인과관계를 밝히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을 뿐이다[2,13,18].

대학생 시기는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시기로서 그 동안의 부모 관계를 수정하고 통합할 수 있으며 변형이 가능한 시기이다. 특히 무엇보다도 가까운 미래에 부모가 될 사람들인 대학생들의 건강한 미래의 가족 형성을 위하여 부모됨에 대한 준비가 요구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 및 교육이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부모애착 정도와 부모됨의 동기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미래의 건강한 가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 부모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의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대학생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대학생들의 부모됨의 동기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대학생이 인식한 어머니 및 아버지의 애착과 부모됨의 동기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북도 소재한 W 대학교의 학

생 223명이다. 자료 수집은 W 대학교의 일반교양과목으로 개설된 부모-자녀 관계론을 수강하는 대학생 245명이며, 2009년 3월 둘째 주에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 중 한 부모만 존재한 경우의 질문지 7부, 기재사항이 미비한 질문지 15부를 제외한 223부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연구대상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분포하였으며, 연구대상 연령은 18세에서 31세까지로 평균연령은 20세였다. 학년에 따라 결혼에 대한 생각은 전체적으로 77.6%가 결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학년이 결혼을 하겠다는 비율이 88.9%로 가장 높았다. 연구대상의 성별, 학년별 분포 및 결혼에 대한 생각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의 성별 및 학년별 분포와 결혼에 대한 생각 N(%)

학년	성별			결혼에 대한 생각			전체
	남자	여자	전체	원함	원하지 않음	생각 안함	
1	16 (25.8)	41 (25.5)	57 (25.6)	39 (68.4)	10 (17.5)	8 (14.0)	57 (100)
2	18 (29.0)	57 (35.4)	75 (33.6)	54 (72.0)	8 (10.7)	13 (17.3)	75 (100)
3	19 (30.6)	53 (32.9)	72 (32.3)	64 (88.9)	0 (0.00)	8 (11.1)	72 (100)
4	9 (14.5)	10 (6.2)	19 (8.5)	16 (84.2)	0 (0.00)	3 (15.8)	19 (100)
전체	62 (100)	161 (100)	223 (100)	173 (77.6)	18 (8.1)	32 (14.3)	223 (100)

## 2.2 연구도구

부모애착 도구는 1987년 Armsden과 Greenberg에 의해 개발된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정정숙[21]이 번안하고, 임지연[18]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부모의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부모애착은 의사소통 10문항(부모와의 언어적 의사소통의 질을 측정), 신뢰감 10문항(청소년들의 정서적 욕구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 있어서 안정성을 측정), 소외감 8문항(부모로부터 정서적 유리 또는 부모에 대한 분노를 측정)으로 총 28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가 사용되었다. 소외감 애착을 구성하는 문항을 제외한 모든 부정적 문항들은 역 채점 하였다. 부모애착은 신뢰감과 의사소통 문항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소외감을 뺀 점수로써 이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도구의 신뢰도는 어머니 애착의 신뢰도가 Cronbach's  $\alpha$  .67 이었으며, 의사소통은 .63, 신

뢰감은 .86, 소외감은 .78이었고, 아버지 애착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2였으며, 의사소통은 .82, 신뢰감은 .86, 소외감은 .81이었다.

부모됨의 동기는 유안진, 신양재[11]의 도구 18 문항과 최향미, 이태섭[22]의 6 문항, 양옥경[7]의 8 문항을 통합한 21개 문항에서 신뢰도와 타당도의 검정 과정을 거쳐 13개 문항을 선정한 정은순[20]의 도구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본 도구는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됨의 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8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하였고 대학생들의 부모애착 정도와 부모됨의 동기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t$  검증을 하였으며, 대학생들이 인식한 아버지 및 어머니의 애착과 부모됨의 동기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

## 3. 결과 및 해석

### 3.1 대학생의 부모애착

대학생의 부모애착에 대한 인식은 표 2와 같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버지의 애착보다 높게 나타났다( $t=4.015, p<.001$ ). 부모애착 중 어머니의 의사소통 애착이 아버지보다 높았으며( $t=3.769, p<.001$ ), 어머니의 신뢰감 애착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5.021, p<.001$ ). 반면 소외감 애착은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높았지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t=-.282, p>.001$ ).

즉, 대학생들은 아버지에 대한 애착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의사소통, 신뢰감 애착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높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대학생들의 부모애착 (N=223)

애착유형		M	SD	$t$
의사소통	어머니	34.96	5.60	3.769***
	아버지	33.44	7.52	
신뢰감	어머니	37.96	6.26	5.021***
	아버지	36.17	7.06	
소외감	어머니	19.40	5.72	-.282
	아버지	19.47	5.48	
전체	어머니	53.52	14.99	4.015***
	아버지	50.14	17.21	

\*\*\* $p<.001$

### 3.2 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

대학생들의 부모됨의 동기는 표 3과 같이 평균 55.72로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차이는 의미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r=1.958, p>.05$ ). 즉 대학생들의 부모됨의 동기는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성별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3] 대학생들의 부모됨의 동기

성별	N	M	SD	t
남자	62	56.85	7.53	1.958
여자	161	54.59	8.18	
전체	223	55.72	8.05	

### 3.3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부모됨의 동기와의 관계

#### 3.3.1 대학생의 어머니 애착과 아버지 애착의 관계

표 5와 같이, 대학생이 인식한 어머니 애착과 아버지 애착은 정적상관( $r=.689, p<.0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 애착은 아버지의 의사소통 애착( $r=.568, p<.001$ ) 및 신뢰감 애착( $r=.547, p<.001$ )과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대학생들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높으면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어머니의 애착이 높으면 아버지와 의사소통과 신뢰감 애착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부모애착 중 어머니의 의사소통 애착은 아버지의 의사소통 애착( $r=.611, p<.001$ ), 신뢰감 애착( $r=.502, p<.001$ )과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신뢰감 애착은 아버지의 의사소통 애착( $r=.601, p<.001$ ), 신뢰감 애착( $r=.687, p<.001$ )과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소외감 애착은 아버지의 의사소통 애착( $r=-.335, p<.001$ ), 신뢰감 애착( $r=-.355, p<.001$ )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소외감과 아버지의 소외감 애착은 정적인 상관( $r=.798, p<.001$ )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어머니의 의사소통과 신뢰감 애착이 높으면 아버지의 의사소통 및 신뢰감 애착이 높고, 어머니의 소외감 애착이 높으면 아버지의 의사소통 및 신뢰감 애착이 낮게 나타난 반면 어머니의 소외감 애착이 높으면 아버지의 소외감 애착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4] 대학생이 인식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착유형간의 관계 (N=223)

애착유형		아버지 애착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	전체
어머니 애착	의사소통	.611***	.502***	-.332***	.524***
	신뢰감	.601***	.687***	-.382***	.603***
	소외감	-.335***	-.355***	.798***	-.054
	전체	.568***	.547***	.034	.689***

\*\*\* $p<.001$

#### 3.3.2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부모됨의 동기의 관계

표 5와 같이, 어머니( $r=.305, p<.001$ )와 아버지의 애착( $r=.290, p<.001$ )은 부모됨의 동기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대학생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착이 높다고 인식하면 부모됨의 동기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부모애착 중 어머니의 의사소통 애착( $r=.332, p<.001$ ), 신뢰감 애착( $r=.273, p<.001$ ), 아버지의 의사소통 애착( $r=.298, p<.001$ ), 신뢰감 애착( $r=.259, p<.001$ )은 부모됨의 동기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대학생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착이 높다고 인식하면 부모됨의 동기가 높음을 보여준다.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의 의사소통 애착과 신뢰감 애착이 높으며 부모됨의 동기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의 의사소통과 신뢰감 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와 형성된 애착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신뢰감이 잘 형성되어 부모애착이 높은 사람은 부모됨의 동기가 높음을 보여준다.

[표 5] 대학생이 인식한 부모애착과 부모됨의 동기와의 관계 (N=223)

애착유형	부모됨의 동기	
	어머니	아버지
의사소통	.332***	.298***
신뢰감	.273***	.259***
소외감	-.128	-.105
전체	.305***	.290***

\*\*\* $p<.001$

####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인식한 부모애착과 부모됨의 동기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결론 및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은 아버지에 대한 애착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더 높았으며, 의사소통, 신뢰감에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버지에 대한 애착보다 더 높았다. 특히 남자 대학생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차이가 없었지만 여자 대학생들은 부모애착 중 어머니와 의사소통, 신뢰감에서 아버지의 애착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남학생과 여학생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어머니 애착이 높았음을 보고한 오승희[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학생이 남학생보다는 어머니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지니나 접근성을 추구함으로써 어머니와 높은 애착의 질을 형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에 반해 남학생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독립적이 되고 폭넓은 사회관계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부모와의 애착이 감소할 수 있다는 Amato[23, 24]의 입장을 지지해 주는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아버지 역할이 도구적인 면과 관련지어 비교해 볼 때 남학생들은 부모보다는 다른 성인들과 교류하는 것을 선호하는 내적실행모델을 형성한 반면 여학생들은 어머니의 양육적이고 표현적인 부모역할에 대한 내적실행모델을 형성하여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부모애착을 더 높게 형성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남녀의 차이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한 장휘숙[18], 윤승경[12]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특히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 보다 의사소통과 신뢰감 애착이 높다고 보고한 이은경[16]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렇게 남녀 간의 부모애착에 대한 결과의 혼재는 다양한 가족문화 및 사회적 변인들이 대학생으로 성장하기까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부모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각적인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들의 부모됨의 동기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지만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결혼을 하여 부모가 되겠다고 50% 이상이 응답했던 Calvert와 Stanton[25] 그리고 김은주[1]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부모됨의 동기가 분명함을 드러낸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성별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역할을 동등하게 본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부모됨의 동기가 높은

대학생들에게 향후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올바른 가치 및 태도를 형성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예비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대학생의 어머니 애착과 아버지 애착은 관련성이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의 의사소통과 신뢰감 애착이 높으면 아버지 의사소통이나 신뢰감 애착이 높게 나타난 반면 아버지의 소외감 애착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애착을 조사한 결과 부의 애착이 증가할수록 모의 애착이 증가한다는 박병태[3]의 연구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착이 정적상관이 높았다는 이수연[15]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 애착은 자녀에게 공동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예비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자녀를 양육을 위한 어머니와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과 더불어 책임의 동등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할 것이다.

부모애착 중 어머니의 소외감이 높으면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신뢰감은 낮게 나타나고 아버지의 소외감은 높아졌다. 이는 어머니의 소외감이 높으면 아버지의 의사소통이 독단적이며 방임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6]. 즉 어머니의 소외감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로부터 분리된 경험을 제공하며 신뢰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아버지와의 단절을 초래하고 긍정적인 애착형성 보다는 소외감을 높게 형성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대학생이 어머니의 소외감 애착을 높게 형성하면 이에 대한 내적실행모델을 형성하여 바람직한 부모역할 모델을 습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결과를 토대로 예비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은 가정 내에서 부모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전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들의 부모애착과 부모됨의 동기와의 관계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을 높게 인식 할 때 부모됨의 동기가 높았다.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의 의사소통, 신뢰감이 높으면 부모됨의 동기도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애착이 높게 나타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내적실행모델을 형성하여 부모됨의 동기를 높게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대학생들이 자신을 양육해 준 부모역할의 유형이 미래의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신이 실행하게 될 부모역할과 정적인 상관성이 있었다는 박화운 등[5]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써 이는 애착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변화하여 세대 간의 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연구들[18, 31]들을 지지해준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은 부모와의 애착형성을 통해 획득한

내적실행모델을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신의 부모들과 유사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사점을 준다.

특히 대학생의 시기는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부모가 되는 바로 전 단계이며 자신의 인생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시기로서 자신이 이미 형성한 내적실행모델을 교육과 환경의 영향으로 수정 가능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내적실행모델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할 수 있는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의 표집은 전라북도 W대학교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모든 대학생에게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으며 남학생과 여학생의 표집인원의 비율에 대한 타당도가 다소 부족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표집인원을 늘리고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부모됨의 동기를 양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는데 그쳤지만 대학생의 시기는 내적실행모델이 수정, 재통합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부모애착의 형성에 대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심층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남학생들은 부모애착은 여학생들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들이 미래에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신의 자녀들과 애착형성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남학생들이 좀 더 애착을 잘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녀 부모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수정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김은주, 여대생의 부모기 인식, 부모됨 동기 및 부모 역할 동의, 아동간호학회지, 21, 89-95, 2006

[2] 김은진,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 수준을 매개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3] 박병태, 부모, 또래애착이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4] 박성연, 도현심, 정승원, 부모-자녀관계 생태학적 접근. 서울: 학지사, 1996.

[5] 박화윤·최재숙·마지순, 부모역할, 자녀양육과 양육태도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아동학회지, 235, 65-76, 2002.

[6] 신향숙·장윤옥,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

소통유형이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89-202, 2001..

- [7] 양옥경, 한국 가족개념에 관한 대학생의 인식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 175-199, 2001.
- [8] 오송희,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9] 유계숙, 정현숙,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에 대한 청년의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3), 39-47, 2002.
- [10] 유안진, 부모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동문사, 2003.
- [11] 유안진·신양재 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역할 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4), 141-155, 1993.
- [12] 윤승경, 청년기 자녀의 애착과 독립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13] 이내은,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청소년의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14] 이시은·이재창, 대학생의 애착유형, 부모-또래애착, 그리고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947-963, 2005.
- [15] 이수연,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16] 이은경,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17] 임지연, 부모에 대한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18] 장휘숙, 애착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한국심리학회 구두발표, 276-277, 2006.
- [19] 정미라·이희선·배소연, 대학생들의 예비 부모교육에 관한 인식 및 요구. 유아교육연구, 15(1), 179-197, 1995.
- [20] 정은순, 대학생의 부모됨에 대한 인식조사.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21] 정정숙, 자아정체감과 독립성 및 애착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22] 최향미, 이태섭, 안양대학교 학생들의 예비부모교육에 관한 인식조사. 인문과학연구, 7(1), 232-252, 1999.
- [23] Amato, P. R., Children's adjustment to divorce: Theories, hypotheses, and empiric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 23-38, 1993.
- [24] \_\_\_\_\_, Consequences of divorce for adult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 1269-1287, 2000.
- [25] Calvert, B. & Stanton, W., Perception of parenthoo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15 year-old girls

- and boys. *Adolescence*, 27, 315-329, 1992..
- [26] Jensen, R. B., Christensen, R., & Wilson, D. J., Predicting young women's role preference for parenting and work. *Sex Roles* 13, 507-514, 1985..
- [27] Kim, J. O., & Goo, H. S., The Development and the effect of parent education program on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y Association*, 25(1), 113-125, 2007.
- [28] Main, M, Kaplan, N., & Casidy, J. 1.,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Q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L.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p.33-35).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1985.
- [29] Morahan-Martin, J., Consider the children: Is parenthood being devalued? *Psychological Record* 41, 303, 1991.
- [30] Sroufe, L. A., & Fleeson, J., Attachment and the construction of relationships. In W. Hartup & Z. Rubin(Eds.)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p.51-71). Hillsdale, NJ: Erlbaum, 1986.
- [31] Sroufe, L. A., Jacobvitz, D., Mangeldorf, S. DeAngelo, E., & Ward, M. J., General boundary dissolution between mothers and preschool children: A relationship systems approach. *Child Development*, 56, 317-325, 1985.
- [32] White, D. & Wollet, A., *Families. A Context for Development*. London: The Farmer Press, 1992.

---

**마 지 순(Ji-Sun Ma)**

[정회원]



- 2001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육학석사)
- 2004년 2월 :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문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거제대학 유아교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부모교육, 유아 교사교육

---

**박 정 환(Jung-Hwan Park)**

[정회원]



- 1992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문학사)
- 1994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문학석사)
- 2001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교육공학, 유러닝(U-Learning), 포트폴리오 평가

---

**강 영 식(Young Sik Kang)**

[정회원]



- 2001년 2월 :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석사)
- 2004년 2월 :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문학박사)
- 2006년 2월 :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박사)
- 2008년 ~ 현재 : 명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관심분야>

아동복지, 부모교육